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# 가이트너 재무장관, AIG 스캔들 휘말려

- 최근 미 하원의원들이 현직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(Timothy Geithner)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시절 AIG의 공적자금 유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음.
  -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AIG가 대형 은행들과의 스왑계약을 해결하게 위해 620억 달러를 지불한 것에 대해 당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가이트너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가이트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함.
  - 이에 가이트너 장관은 2008년 말 재무장관에 임명된 이후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IG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함.
- 미 하원 감독위원회(house of representatives oversight committee)는 AIG에 지원된 공적자금 1,800억 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으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가이트너 장관에 대해 공격적인 심문이 이어짐.
  - 하원의 모든 의원들은 올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,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은행에 대한 거액의 구제금융과 은행이 임원에 지급한 거액의 보너스 등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.
  - 따라서 많은 의원들이 AIG가 세금으로 총당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뒤 스왑거래 합의 명목으로 상대은행에 거액을 지불하고도 수개월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특히 분노하고 있음.
  - 가이트너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만 따를 뿐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백악관은 AIG 구제금융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을 옹호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음.
  - 한편 가이트너 장관의 개입설이 확대될 경우 벤 버냉키(Ben Bernanke)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버냉키 의장도 자신은 AIG의 지불에 직접적으로 관계한 적이 없다고 발표함.

(Business Insurance, 1/27)